



올 전국대회 2관왕... 무적 '퀸 세종'

스포츠 포커스

세종고 소프트볼팀

세종고 소프트볼팀의 올 시즌 기세가 무섭다. 4월 회장기 전국여자대회 우승에 이어 7월 미추홀기 여자고교대회까지 거머쥐면서 벌써 전국대회 2관왕에 올랐다. 팀 창단 5년만에 올린 쾌거였다.

올 목표는 전국대회 3관왕과 전국체전 입상이다.

올들어 세종고의 가파른 상승세가 당분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목표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미추홀기 결승에서 강호 서울 신정여상을 상대로 대역전극을 펼쳐 얻은 정상 등극의 기쁨이 이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바뀌어 어느때와 달리 사기충천해 있는 것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이같은 자신감은 여느팀에 뒤지지 않는 기량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훈련은 집중해서 굵고 짧게”

윤현필 세종고 감독의 훈련지문이다. 생각없이 하는 100번의 타격연습 보다 정신을 집중해서 50번 타격연습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평범하지만 세종고만의 ‘훈련비법’이라 할 수 있다.

선수들도 이같은 훈련 방법의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 강요와 지시에 의한 타율적 훈련을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이 바로 2관왕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세종고는 또한 봉산중으로부터 꾸준히 우수 선수들을 받아들여면서 선수들간 기량차가 줄



광주 세종고 소프트볼 팀. 왼쪽부터 윤현필 감독·원혜련·강 미·강아나·오수아·이영란·원혜송·홍유진·이가을 선수.

국가대표 코치 출신 윤현필 감독 ‘명품 지도’ 주니어 대표 선수들 ‘봉산중 패밀리’ 맹활약 3관왕·전국체전 입상 목표 한여름 ‘구슬땀’

어둡고 단결력이 커지는게 또하나의 큰 힘이 되었다. 사실 올 1학년 6명은 모두 봉산중 출신들이다. 봉산중은 올 전국소년체전에서 우승한 중학부 최강팀이다.

세종고의 정상 포효는 국가대표급 지도자도 한 몫 했다. 윤 감독은 지난 1996년 국가대표 상

비군 코치로 첫 태극마크를 단 이후 그 해 상비군 감독직까지 올랐다. 이때에는 국가대표 코치까지 역임한 윤 감독은 자신만의 노하우를 지난 2004년부터 세종고에서 하나씩 풀어놓으면서 ‘명품부사들’을 키우기 시작했다.

이처럼 선수·감독이 환상의 조화를 이루면서 2006년부터 전국 정상을 넘보다 급기야 올부터 우승 행진을 펼치는 ‘무적의 팀’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총 10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현재 원혜련(투수)과 강 미(2루수·이상 3년)가 주니어대표로 활약하고 있다.

원혜련은 변화구의 제구력이 뛰어나 지난 미추홀기에서 4승(3경기 완투)으로 최우수 투수상을 받은 기대주이다. 특히 팀의 주장으로서 리더십이 뛰어난 그는 파워배팅만 갖추면 투타 완벽한 전천후 선수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강 미도 투득한 배짱으로 타석에서 자신있는 타격이 돋보인다. 순발력만 보완하면 공·수·주에서 뛰어난 기량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범음(좌익수)과 강아나(우익수·이상 2년)

도 팀의 허리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조범음은 지난 미추홀기에서 6할3푼6리의 맹타로 타격왕의 영예를 안으며 팀타선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강아나는 역대선수 출신으로 뒤늦게 소프트볼을 시작했다지만 타고난 운동감각으로 빠르게 적응해 가고 있다.

“봉산중 패밀리” 1학년 막내들도 결코 선배들에 뒤지지 않는 기량을 갖추고 있다. 안방을 책임지고 있는 오수아(포수)는 득점찬스에 강한 타격을 보이는 주준급 선수로 지난 미추홀기에서 타점왕(9타점)이었다. 유격수를 맡고있는 홍유진도 빠른 발과 정교한 타격으로 지난 미추홀기 결승에서 4타수 4안타 결승타를 터뜨려 최우수선수의 영예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영란(3루수·원혜송(중견수)·이가을(1루수·김소희(우익수) 등이 선배들 못지 않는 기량으로 팀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듯 승승장구하며 하늘을 찌를듯한 기세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점이 있다. 바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연습을 마치고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다른 팀들처럼 바닷가에서 전지훈련도 하고 싶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학교와 고향의 명예를 위해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 세종고 소프트볼팀에 대한 교육청과 체육회의 두둑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연습에 충실하고 있는 이들에게 3관왕의 자리는 그리 높지만 보이지는 않는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사진=위정라기자 jrwi@kwangju.co.kr



창단 5년째인 세종고는 올해 목표 전국대회 3관왕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소프트볼이 야구와 다른점

팔 돌리며 던지는 ‘푹차 피칭’ 선수 교체해도 재출장 가능

소프트볼과 야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투수의 투구폼이 다르다는 것. 야구는 오버핸드·사이드핸드·언더핸드 투구를 하지만 소프트볼은 윈드밀(푹차) 피칭이다. 아래에서 위쪽으로 팔을 돌리며 던지는 폼으로 2회전 이상 돌리면 부정투구에 해당된다. 윈드밀 이외에도 슬링샷·에이트 피겨스타일의 투구모션이 있다.

평면 피쳐서클서 투구

베이스·팬스 거리 짧아

루상 주자의 리드에도 차이가 있다. 야구는 투수가 투구모션을 취하는 순간부터 베이스에서 발을 떼고 다음 베이스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소프트볼에선 볼이 투수의 손에서 떠나기 전에는 리드할 수 없다. 만약에 규약을 어기면 주자는 바로 아웃된다. 또 다른 차이점은 선수교대이다. 야구의 경우 한번 교체돼 그라운드를 벗어난 선수는 재출장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소프트볼은 재출장이 가능하다. 단 재출장할 때에는 반드시 원래의 타순에 들어와야 한다.

투수지역의 명칭도 다르다. 야구의 경우 마운트라 볼리우지만 소프트볼의 경우엔 마운드라 아닌 피쳐서클이라 한다. 야구의 마운드는 그라운드 표

면 자체에서 솟아올라 있지만 피쳐서클은 평면이라서 야구장이 아닌 넓은 운동장만 있으면 어디서든 경기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베이스간 거리도 차이가 있다. 야구는 27.432m이고 소프트볼은 18.29m 이다. 홈과 투수간 거리도 야구는 18.44m, 소프트볼은 13.11m이다. 홈런 펜스 거리도 야구는 100m 이상인 반면 소프트볼은 67~75m로 짧다.

이렇듯 경기장 규격에서도 야구보다 소프트볼이 작아 선수들의 체력소모가 야구보다 훨씬 적다는 장점도 있다.

볼도 야구공은 반발력이 강해 수비수들의 부상 위험이 있지만 소프트볼은 야구공에 비해 캐비닛의 저항을 많이 받아 타구속도가 야구공보다 낮아 부상위험이 낮다고 한다.

한국에 소프트볼이 도입된 시기는 8·15 광복 이후 미군이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로 추정된다. 국내에선 1989년에 대한소프트볼협회 가 창립되었고, 그해 대한체육회의 준가맹단체로 정식 승인을 받았다.

1996년 제7회 강원도 전국체육대회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었다. 2004년 제85회 전국체육대회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2007년 제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시범종목으로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엔 남자 엘리트팀은 없으며 동호인들의 경우엔 남자팀이 있다.

/서승원기자 swseo@



소프트볼은 경기 룰 등 야구와 같거나 비슷한 점이 많지만 투구폼이나 투수지역·장비 등 다른점도 많다.

영화안내 HAPPY TIME 인기영화 즐거운시간 보내세요

메가박스 구.연원역국사거리 ☺에메1544-0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M관 국가대표 (12세) 최고급관 2관 해운대 (12세) 3관 4교시 추리영역(15세)/지.아이.조(15세) 4관 해운대 (12세) 5관 퍼블릭에너미 (15세) 6관 아이스에이지-3(연체)/지.아이.조(15세) 7관 10억/4교시 추리영역(15세) 8관 불신지옥 (15세) 9관 국가대표 (12세)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화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관 10억 (15세)/업-더빙(연체) 2관 불신지옥 (15세) 3관 국가대표 (12세) 4관 국가대표 (12세) 5관 4교시 추리영역(15세)/아이스에이지-3(연체) 6관 헤리포터와 혼혈왕자(연체)/아이스에이지-3(연체) 7관 해운대 (12세) 8관 퍼블릭에너미 (15세) 9관 지.아이.조 (15세) 10관 해운대 (12세) 	하미 시네마 신대후문 하이믹스포터즈 ☎ 267-77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관 4교시 추리영역(15세)/처우 (18세) 2관 해운대 (12세) 3관 10억 (15세) /국가대표 (12세) 4관 불신지옥 (15세) 5관 해운대 (12세) 6관 업(연체)/퍼블릭에너미 (15세) 7관 아이스에이지-3 (연체) 8관 지.아이.조 (15세) 9관 국가대표 (12세) 10관 해운대 (12세) 	씨너스 전대 북구보리소스 건너편 ☎ 511-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관 지.아이.조 (15세)/10억 (15세) 2관 불신지옥 (15세) 3관 해운대 (12세) 4관 아이스에이지-3(연체)/퀸 락 몬트리올(연체) 5관 퍼블릭에너미 (15세) 6관 국가대표 (12세)/해운대 (12세) 7관 국가대표 (12세) 	제일 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관 해운대 (12세) 2관 불신지옥 (15세) 3관 퍼블릭에너미 (15세) 4관 국가대표 (12세) 5관 지.아이.조 (15세) 6관 아이스에이지-3 (연체)/10억 (15세)
---	--	--	--	---